

LG 오브제컬렉션 100色 가전 시대 활짝 열었다

LG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LG 오브제컬렉션(Objet Collection)'을 앞세워 다양한 세대가 집안 인테리어에 맞춰 재질과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 인테리어 가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LG 오브제컬렉션은 기존의 프리미엄 프라이빗 가전 LG 오브제를 진화시킨 공간 인테리어 가전 브랜드다. LG전자는 2018년 가전과 가구를 결합한 신개념 융·복합 가전인 LG 오브제(Objet)를 출시하며 가전이 인테리어의 일부가 되는 공간 가전 트렌드를 이끌어 왔다.

LG전자는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 빌트인 타입 냉장고, 김치 냉장고, 1도어 냉장·냉동·김치 컨버터블 냉장고, 식기세척기, 광파오븐, 정수기, 워시타워, 스타일러 등 생활가전 전반에 걸쳐 LG 오브제 컬렉션 신제품 11종을 출시했다.

하나씩 더할수록 집 전체의 인테리어 완성

LG전자는 '나' 자신을 위한 공간 맞춤 가전인 LG 오브제의 컨셉트를 집 전체의 공간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LG 오브제컬렉션으로 확장했다. 주방, 거실, 세탁실 등 집안 곳곳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전을 조화롭고 일체감 있는 디자인으로 구현한 LG 오브제컬렉션은 하나씩 더할수록 집안의 인테리어가 완성되는 효과를 준다.

색상, 소재 선정을 위해 세계적 연구소와 협력

LG 오브제컬렉션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해 세계적인 색채연구소인 미국 팬톤컬러연구소(Pantone Color Institute)와 오랜 기간 협업했다. 인테리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 가구에 주로 쓰이는 소재인 페닉스 등 다양한 재질을 선정했다. 페닉스는 이탈리아 가구소재업체 아르파 인더스트리알레(Arpa Industriale)가 특수코팅기술을 적용해 만든 혁신적인 소재다. 이 소재는 고급스러운 색감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에 강해 관리가 쉽다.

고객이 직접 인테리어에 맞춰 제품 재질과 색상 선택

LG 오브제컬렉션은 특정 공간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인테리어 톤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객들이 다양한 재질과 색상을 직접 조합할 수 있고 제품을 하나씩 더해가면서 공간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다.

고객들은 제품에 도어가 없는 정수기를 제외한 모든 LG 오브제컬렉션 제품의 전면 재질과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이사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바꿀 때 LG 오브제컬렉션은 고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특정 세대가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선택하는 가전 컬렉션

LG 오브제컬렉션은 밀레니얼, X세대, 베이비부머 등 여러 세대가 선택할 수 있게 색상과 재질이 다양하다. 고객들은 페닉스, 스테인리스, 글라스, 메탈 등 다양한 재질과 조합된 13가지 색상 가운데 하나를 냉장고 도어에 적용할 수 있다.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의 경우 노크온 매직스페이스를 제외한 도어 3개 각각에 색상을 입혀 조합하면 모두 145가지가 나온다.

LG전자는 LG베스트샵을 찾은 고객이 색상을 쉽게 고를 수 있도록 ▲ 세련된 예술가의 공간에 어울리는 홈 아틀리에 패키지 ▲ 화사한 감성의 공간에 맞는 홈 가든 패키지 ▲ 모던한 안정감의 공간



에 적합한 홈 카페 패키지 등 콘셉트에 맞춰 조합한 패키지를 제안한다. LG베스트샵은 연말까지 LG 오브제컬렉션을 패키지로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200만원 상당의 멤버십 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주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LG 씽큐의 새로운 경험과 고객가치

LG 오브제컬렉션 가운데 광파오븐, 정수기, 식기세척기는 서로 연동된다. 무선인터넷을 통해 3개 제품을 스마트폰의 LG 씽큐(ThinQ) 앱과 연결하면 고객들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

운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광파오븐에서 식혜, 팔죽, 라면, 달걀찜 등 물이 필요한 11가지 레시피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정수기가 해당 요리에 필요한 물의 양을 설정한다. 이어서 정수기 버튼만 누르면 필요한 물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광파오븐에서 통닭, 통삼겹살, 스테이크 등 식기를 세척하기 어려운 11가지 레시피를 선택하면 식기세척기가 자동으로 강력, 불림, 스팀 등 레시피를 고려한 맞춤형 세척 모드를 설정해준다. ①

